

##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공백 유무 및 일수의 결정요인

김 지 경<sup>†</sup> · 김 균 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Determinants on the Absence of After-school Care among Elementary Students

Kim, Jikyung<sup>†</sup> · Kim, Gyunhe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Seoul, Korea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n the absence of after-school care among elementary students. This study is based on the National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2010) data and analyzed through Binary Logit Model and Multinomial Logit Model.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irst, school grades, the number of siblings, mother's education, family type by parental employment, family structure, family type by parental nativity, and family income, all affected the absence of after-school care. Second, the absence days of after-school care was affected by different factors. 1day-2days a week in absence of after-school was more likely to increase among children with more siblings and an older father. On the other hand, spending over 3-4days a week without after-school care was more likely to increase among mothers with lower education, dual-earner families, multicultural families, lower family incomes, small cities and rural area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agree with the generalization and the diversification of after-school care policy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Key words: after-school, absence of care, elementary student

#### I. 서론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1년 기준 1.24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Statistics Korea 2011).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우리나라 전체 생산인구의 감소 및 부양인구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2060년까지의 세계경제 장기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향후 20년부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현재 수준(2.7%)보다도 더 둔화되어 1%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Yonhap News 2012a).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및 노인부양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고, 그 방안의 일환으로 일·가정 양립 및 자녀양육

이 논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생산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1차년도(2010)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임을 밝힙니다.

접수일: 2012년 11월 20일 심사일: 2012년 12월 21일 게재확정일: 2013년 1월 17일

<sup>†</sup>Corresponding Author: Kim, Jikyung Tel: 82-2-2188-8875

e-mail: jkkim@nypi.re.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일하는 여성을 위한 자녀양육지원서비스 체계가 발달되어 있는 북유럽국가 중 스웨덴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76%로 매우 높으며, 합계출산율 또한 우리나라보다 높은 2.0명에 근접한다는 사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2)은 인구 및 경제정책 차원에서 자녀양육지원정책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인구 및 경제적 측면에서의 출산율에 대응하는 자녀양육지원정책과 더불어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출산에 이은 자녀양육 및 돌봄 차원에서의 자녀양육지원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사회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의 자녀양육지원정책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어 왔다. 이는 핵가족화, 이혼·별거 등에 따른 가정해체, 다양한 배경을 갖는 가족의 등장, 가족가치관의 변화, 가족 구성원의 유대감 약화 등으로 가족 내에서 수행되어온 자녀양육 및 돌봄 기능이 약화되자(Kim & Kim 2006), 더 이상 자녀양육의 문제를 개별 가정의 책임으로 국한시킬 수 없으며 국가와 사회가 자녀양육과 돌봄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확대된 데에 따른 것이다. 즉 사회·경제 구조의 거시적 변화에 영향을 받은 가족 및 구성원들의 변화와 미래 사회의 인적자본인 아동의 양육과 보호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이 결합되면서 자녀양육지원정책에서의 양육과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정부의 자녀양육지원정책은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예컨대 ‘보육시설 및 방과후돌봄시설 등 시설확대’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가정 내 돌봄 지원’, ‘육아휴직 제도 확대’, ‘지역사회 돌봄망 확충’, ‘양육비 지원’ 등 여러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Cha et al. 2010; Lee et al. 2011; Yoon & Lee 2012). 이들 정책들은 대체로 돌봄공백 시간의 축소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확대·발전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녀양육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이제까지 추진되어 온 정책들은 주로 영유아 또는 영유

아가 있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양육과 돌봄 지원에 집중되었다는 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Lee 2009; Cha et al. 2010; Oh & Yoo 2012). 예컨대 보육시설 및 유치원은 종일제, 반일제, 야간보육 등 비교적 수요자 욕구에 대응하는 다양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 대비 공급 시설의 공급 비율도 126.4%(Lee 2009; Cha et al. 2010)에 달하는 반면, 학령기 아동, 즉 초등학교에 대한 자녀양육지원정책은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한 공적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선별적으로 제공되어 초등학교 중 27.6%가 방과 후 ‘돌봄공백(나홀로)’ 상태(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1)에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19.6%에 게만 공적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Seoul University R&DB Foundation 2009).

이러한 이유로 초등학교의 양육지원에 관심을 둔 선행연구들(Lee 2009;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9; Cha et al. 2010; Lee et al. 2011; Oh & Yoo 2012)에서는 초등학교의 방과 후 양육 및 돌봄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 현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데 그치고 있어, 초등학교생들 중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양육 및 돌봄서비스가 필요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다양한 형태의 기혼여성 경제활동 참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가정의 출현, 거주행태의 다양화 등 삶의 양식의 변화를 고려해 볼 때, 초등학교생이 경험하는 방과 후 돌봄공백 수준과 양상은 개별 아동, 부모 및 가구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2011년 여성가족부의 「홀로남아 보호가 필요한 아동(나홀로 아동) 안전현황조사」결과에서도 방과 후 ‘나홀로 상태’로 지내는 정도가 주당 1일 24%, 2-4일 32%, 5일 이상 44% 등으로 돌봄공백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이 방과 후 나홀로 있게 되는 사유도 ‘학원시간 때문(36.1%)’, ‘말길 곳이 없기 때문에(27.0%)’, ‘비용 때문(8.1%)’, ‘마음에 드

는 곳이 없기 때문(2.8%)’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1). 이와 같은 실태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본다면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욕구는 개별 아동과 가정에 따라 다를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초등학생에 대한 자녀양육지원정책으로서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차별적이고 다양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인 초등학생의 양육 및 돌봄공백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을 위하여 초등학생의 돌봄공백 유무 및 일수, 즉 초등학생이 방과 후 성인의 보호자 없이 방치되어 돌봄공백 상태를 경험하는 일수가 있는지 없는지, 주당 며칠이나 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아동 개인, 부모, 가구의 특성에 따라 방과 후 돌봄공백 일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또한 방과 후 돌봄공백 유무 및 일수의 결정 요인을 모델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실증분석을 함으로써, 관련정책의 구체적인 개발에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 근거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초등학생의 개인, 부모, 가구의 특성에 따라 방과 후 돌봄공백 일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공백 유무의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공백 일수의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공백 현황 및 공적 방과 후 돌봄서비스

시설에서 종일 보육이 가능한 유아와는 달리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공백의 문제, 즉 방과 후 성인의 보호 없이 초등학생 혼자 방치되는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미취학

아동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마친 후 부모, 친인척, 이웃집 주민, 베이비시터 등 성인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비율이 98% 정도(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Seoul University R&DB Foundation 2009)인데 반해, 취학 아동의 경우 방과 후 가정 내 성인의 보호를 받는 아동의 비율이 69%(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09)로 아동의 학령기 진입과 동시에 방과 후 성인의 보호 비율은 급감한다. 이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공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2011년 여성가족부의 「홀로 남아 보호가 필요한 아동(나홀로 아동) 안전 현황 조사」에서 파악된 방과 후 돌봄공백 상태에 있는 ‘나홀로 아동1)’의 규모는 전국 초등학생 328만 명 중 약 30%에 달하는 97만 명으로 추정된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1). 즉 초등학생 3명 중 1명이 방과 후 돌봄공백 상태에 있는 것이다.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돌봄공백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정부의 자녀양육지원정책이 저출산 완화와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영유아 보육 및 양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으로 영유아 양육에 정부지원이 의무화된 이래 육아지원을 위한 보육시설의 확충, 아이돌보미 등 가정 내 돌봄 지원, 공동육아 나눔터 및 육아품앗이 등의 지역 사회돌봄망 확충, 임신, 출산, 자녀 건강 및 양육, 보육 및 교육비, 아동 수당 지급 등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자녀양육지원정책들이 확대되어왔다(Lee et al. 2011; Yoon & Lee 2012). 그러나 이와는 달리 초등학생에 대한 양육지원정책은 방과 후 돌봄서비스 사업이 유일하다.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5」에도 초등학생 부모의 보육·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으로 ‘취학아동 방과 후 민간 돌봄서비스 시장 조성’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녀양육지원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1) 일주일 1일 이상, 하루에 1시간 이상 혼자 또는 초등학생이하의 아동끼리만 집에 있는 13세미만의 아동·청소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은 2004년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의 방과후학교 사업의 일환으로(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 Development 2006), 학교교육기능을 보완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여성인력 활용 제고를 실현하고자 하는 아동 보호 및 교육활동 제공 서비스이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9). 이 사업은 2006년 1,421개교에서 실시되던 것이 2012년 5,652개교로 확대되어, 현재 전국 초등학교의 약 96%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을 주요대상으로 하며, 방과 후 시간부터 오후 5시 또는 오후 6시까지만 서비스가 제공되어 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엄마품 온종일돌봄교실’을 통해 방과 전부터 오후 10시까지 학교 내 돌봄교실에서 맞벌이가정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을 위주로 보호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약 2,000개의 교실에서 엄마품 온종일돌봄교실을 운영 중이며, 2013년에는 3,000교실로 확대될 예정이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9; After-school Homepage 2012).

지역아동센터는 정부차원에서 실시된 초등돌봄교실, 엄마품 온종일돌봄교실과 달리, 초기 민간차원에서 ‘공부방’이라는 명칭으로 자생적으로 조직되어 1980년대 이후부터 지역사회 내 빈민지역 및 공단지역의 저소득 아동의 보호 및 교육을 담당해 왔다(Shim 2009).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 법적 지위를 갖고 제도권 내에 편입되었다.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된 이후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시설수와 이용아동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4년 895개소, 2,300명이었던 이용자가 2012년 6월 현재 4,003개소, 107,000명으로 증가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Headquarters Community Child Center 2012). 초등돌봄교실, 엄마품 온종일돌봄교실의 운영주체가 정부인 것과는 달리 지역

아동센터의 운영주체는 공사협력이라는 차이가 있고, 그 외 다른 차이는 이용대상자의 연령에 있다.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에 집중되어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와는 달리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은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수급권자 가정 아동, 차상위·조손·다문화·장애·한부모 아동, 기타 승인아동’(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으로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2년 6월 이용대상 중 초등학생의 비율은 73.3% 수준으로(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Headquarters Community Child Center 2012),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정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로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나홀로 청소년에게 가정과 공교육을 보완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한부모·장애·취약계층 가정의 나홀로 청소년에게 활동·복지·보호·지도를 통하여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지원하며, 여성의 경제참여를 촉진시키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2). 이러한 목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목표와 거의 다를 바 없으나, 차이가 있다면 대상자의 연령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년 2학년까지이고, 단순 보호 및 생활지도 이외에 전문 체험활동이나 학습지원활동 등이 제공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이와 함께 사업추진 시설 수가 2012년 기준 전국의 200개소에 불과해(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2) 초등돌봄교실, 엄마품 온종일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에 비해 서비스 접근성이 낮다는 단점도 있다.

이 외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아이돌보미를 통하여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Kim et al. 2010), 공동양육터, 가족품앗이 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자녀 돌봄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역 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2). 그

러나 아이돌보미사업은 2011년(1월-11월)을 기준으로 만 6세-8세, 만 9세-12세 아동이 각각 전체 시간제 서비스 이용자 수 대비 16.2%, 6.7%에 불과하여(Koh 2012),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로의 기능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동양육터, 가족품앗이 사업은 현재 정책 초기 단계로 2011년의 이용자 수가 42,411명 밖에 되지 않는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사교육비 경감과 여성의 취업기회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9) 어느 정도 목적에 부합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양적인 공급은 미흡한 수준이며, 시설지원 외의 가정 내 돌봄서비스지원은 일부 아동에게만 운영되고 있어 일시적 돌봄이 가능한 서비스 또한 매우 취약하다. 정부 예산의 한계로 공적 방과 후 서비스가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다양한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2.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공백 상태에 미치는 영향 요인

방과 후 초등학생의 돌봄공백 상태는 아동이 방과 후 성인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혼자 또는 형제·자매와 있는 상태로 설명할 수 있다. 방과 후 아동 보호와 관련한 다수의 선행연구(Brandon 1999; Ok et al. 2001; Vandivere et al. 2003a; Kong & Kim 2006; Lee & Kim 2008; Green et al. 2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1)에서는 이러한 방과 후 돌봄공백 상태에 있는 아동을 ‘자기보호(self-care) 아동’ 또는 ‘나홀로 아동’으로 정의하여 왔다.

어떠한 요인들이 방과 후 아동의 돌봄공백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갖은 연구에 따르면 아동 개인과 부모의 특성, 그리고 가정환경 특성 등이 영향 요인이며, 이들 요인 중 아동의 연령이 가장 영향력이 높은 요인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Vandivere et al. 2003a). 즉 아동의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발달적으로 성숙할수

록 부모가 방과 후 아동을 혼자 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Brandon 1999; Vandivere et al. 2003a; Casper & Smith 2004; Green et al. 2011). 아동의 연령 이외에도 형제·자매의 존재여부 및 연령차이 또한 방과 후 돌봄공백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동에게 형제·자매가 있고 형제 간 연령 차이가 많을수록 방과 후 성인의 돌봄 부재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Brandon 1999). 형제·자매의 존재와 연령 차이가 방과 후 아동의 돌봄공백을 높이는 것은 나이 많은 형제가 어린 동생을 돌보는 것, 즉 형제간의 돌봄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부모의 인식에서 기인(Vandivere et al. 2003a)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아동의 방과 후 돌봄공백 상태를 결정하는 부모의 특성으로 부모의 교육수준과 연령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의 영향은 선행연구들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아동의 자기보호, 친척보호, 성인보호 등 방과 후 보호형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혀진 연구(Brandon 1999)가 있는 반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률이 낮다고 밝힌 연구(Kim 2011)도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구의 소득수준이 자녀의 교육 및 보육비 지출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An & Jeon 2008)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부모의 교육수준, 특히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아동의 사적 및 공적 방과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예측된다. 또한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고, 출생한 자녀의 순위도 첫째보다는 둘째 또는 셋째인 비율이 높다(Lee & Kim 2007)는 사실과 형제·자매가 있고 형제·자매 간 연령차이가 많을수록 아동이 방과 후 돌봄공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Brandon 1999)를 연계하여 고려해 볼 때, 부모의 연령은 아동의 방과 후 돌봄공백 상태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한편, 사회·경제 및 구조적 변화에 영향을 따른 핵가족화, 이혼·별거 가족 증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회구성원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가 출현하고 있고, 이러한 가족 형

태의 변화로 인하여 가정 내 돌봄 및 양육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아동을 둘러싼 가정, 그리고 거주하는 가구의 특성은 아동의 방과 후 돌봄공백 상태를 결정하는 주요한 영향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돌봄공백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도 맞벌이 여부, 소득수준, 가족형태, 다문화가정 여부 등의 가구 특성이 아동의 돌봄공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

우선 부모의 고용상태가 전일제일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아동이 방과 후 혼자 있을 가능성이 높고(Vandivere et al. 2003a), 부모의 노동시간이 길수록 자녀를 혼자 둘 가능성이 높아(Brandon 1999) 부모 모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맞벌이가정의 아동이 비맞벌이가정의 아동보다 방치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Vandivere et al. 2003a).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이 방치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서구의 일부 연구(Vandivere et al. 2003b)에서는 고소득 가구의 나홀로 아동 비율이 다소 높다는 결과도 있다. 아동의 돌봄공백 상태 경험은 사회적 유능성, 학업문제, 행동 문제 등을 유발하는데(Ok et al. 2001; Aizer 2004; Lee & Cho 2011),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저소득층의 아동에게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rshall et al. 1997; Pettit et al. 1997).

한편 가족구성의 형태 또한 아동의 돌봄공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예컨대 조부모와 가까이 지내는 경우에 아동의 돌봄공백 상태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Brandon 1999), 이혼·별거·사별한 경우 나홀로 아동의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다(Laughlin 2010). 서구 국가에서는 가족의 형태뿐만 아니라 인종도 아동의 돌봄공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즉 인종에 따라 나홀로 아동의 비율에 차이(아시아계 16.0%, 백인계 10.5%, 흑인계 9.7%)가 있다는 연구결과(Laughlin 2010)가 있는 반면 인종이 다른 이민자 가정여부에 따라 아동의 돌봄공백 상태에 차이가 있지 않고, 돌봄공백의 원인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Green et al.

2011)도 있다. 이들 가구 특성에 더하여 거주지역의 환경은 부모가 자녀를 혼자 두어도 된다는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어(Vandivere et al. 2003b)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이 돌봄공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포함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초등학생 개인의 특성 및 초등학생을 둘러싼 미시적·거시적 환경과 원인으로 인해 돌봄공백 상태가 유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방과 후 초등학생의 돌봄공백 가능성을 높이는지, 또 어떠한 요인들로 인해 돌봄공백 일수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공백 유무 및 일수를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생산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이하 KCYPS) 1차년도(2010) 자료이다. 이 자료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생을 대표하는 패널표본 각 2,200여명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매해 1회 개인의 성장 및 발달(신체, 지적, 사회·정서)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가정, 또래 학교, 지역사회, 매체) 등에 관하여 반복·추적 조사하는 종단자료(longitudinal data)이며 국가승인 통계자료이다(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Data Archive Homepage 2012).

본 연구에서는 방과 후 돌봄공백을 경험하는 나홀로 아동의 규모와 관련된 실태조사(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1)가 초등학생 연령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방과 후 나홀로 아동과 관련된 다수의 선행연구(Kong & Kim 2006; Seo 2006; Lee & Kim 2008; Kim & Son 2011; Lee & Cho 2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1)에서 또한 초등학생 연령까지의 아동을 나홀로 아동으로 정의하였음을

고려하여 분석자료인 KCYPS에서 중학생을 제외한 초등학교 1학년생 2,342명(49.6%)과 4학년생 2,378명(50.4%), 총 4,720명을 분석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분석대상자 중 남자는 2,453명(52.0%), 여자는 2,267명(48.0%)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der and school grade of the study objects

(unit: persons(%))		
Variables	Values	All
Gender	Male	2,453 ( 52.0)
	Female	2,267 ( 48.0)
	Total	4,720 (100.0)
School grade	1st in elementary school	2,342 ( 49.6)
	4th in elementary school	2,378 ( 50.4)
	Total	4,720 (100.0)

## 2. 분석변수 및 모델

초등학생의 특성에 따른 방과 후 돌봄공백 일수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고  $\chi^2$ -test로 검증하였으며, 방과 후 돌봄공백 유무와 일수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항로짓모델(Binary Logit Model)과 다항로짓모델(Multinomial Logit Model)을 사용하였다.

분석모델의 독립변수는 방과 후 돌봄공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Kim & Chong 1997; Brandon 1999; Kerrebrock & Lewit 1999; Vandivere et al. 2003a; Vandivere et al. 2003b; Casper & Smith 2004; Ko 2005; Overturf Johnson 2005; Yang et al. 2010; Kim & Son 2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1)에 근거하여 초등학생의 개인 특성과 부모의 특성, 그리고 가구의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초등학생의 개인 특성에는 성별, 학년, 형제·자매 수가 포함되며, 부모의 특성에는 부모의 연령과 교육수준이 해당된다. 또한 맞벌이가정 여부, 가족형태, 다문화가정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거주지역이 가구 특성 변수로 구성되었다.

독립변수 중 초등학생의 성별, 학년, 부모의 교육수준, 맞벌이가정 여부, 가족형태, 다문화가

정 여부, 거주지역은 가변수(dummy variables)로, 초등학생의 형제·자매 수, 부모의 연령, 월평균 가구소득(자연로그)은 연속변수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월평균 가구소득은 조사 직전년도(2009년) 한 해 동안의 가구 전체의 세후 소득으로 측정된 값을 12개월로 나눈 후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다. 모델 분석에 앞서 이들 독립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방과 후 돌봄공백 유무’ 및 ‘방과 후 돌봄공백 일수’이다. KCYPS 1차년도(2010)에서는 조사대상자가 방과 후 혼자 또는 형제·자매끼리만 지내는 일수를 ① 거의 없음, ② 1-2일 정도, ③ 3-4일 정도, ④ 거의 매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Kim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이 변수를 ‘방과 후 돌봄공백 일수’로 정의하였다. Ryu(2012)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기능 약화로 아동, 노인 등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돌봄공백’이라는 표현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방과 후 아동이 성인의 보호 없이 혼자 또는 형제·자매끼리만 지내는 상태’를 ‘방과 후 돌봄공백’이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방과 후 돌봄공백 유무’는 방과 후 혼자 또는 형제·자매끼리만 지내는 일수가 거의 없는 경우(① 거의 없음)와 1일 이상 있는 경우(②-④)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방과 후 돌봄공백 유무 및 돌봄공백 일수에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이항로짓모델(Binary Logit Model)과 다항로짓모델(Multinomial Logit Model)을 실증분석모델로 하였다. 먼저 방과 후 돌봄공백 유무(0. 거의 없음, 1. 1일 이상)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이항로짓모델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방과 후 돌봄공백 일수에 따른 그룹(A: 거의 없음, B: 1-2일 정도, C: 3-4일 정도, D: 거의 매일)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다항로짓분석과 이항로짓분석이 이루어졌다. 먼저, 방과 후 돌봄공백이 거의 없는, 즉 방과 후 성인의 보호 없이 혼자 또는 형제·자매끼리 지내는 일수가 거의 없는 초등학생들(A)을 준거(reference group)로 하여 1-2일(B), 3-4일(C), 거의 매일(D)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고, 다음 단

계에서는 돌봄공백 일수가 1-2일 이상(B)인 초등학생을 준거로 하여, 3-4일(C)과 거의 매일(D) 돌봄공백 상태에 있는 초등학생, 그 다음 단계에서는 돌봄공백 일수가 3-4일 이상인 초등학생(C)을 준거로 하여 거의 매일 돌봄공백이 있는 초등학생(D)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모델분석에서 사용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Tabel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 핸들링과 모델분석은 SPSS 20.0을 사용하였다.

#### IV. 결과 및 고찰

##### 1. 초등학생의 특성별 방과 후 돌봄공백 일수의 차이

초등학생의 특성별로 방과 후 돌봄공백 일수

에 차이가 있는지 Table 3과 같이 비교하였다. 전체 분석대상자의 64.5%는 방과 후 돌봄공백 일수가 거의 없고, 나머지 35.5%는 일주일에 하루 이상 방과 후 돌봄공백 상태를 경험하며, 이들 중 14.4%는 거의 매일, 8.7%는 3-4일, 12.4%는 1-2일 정도 성인의 보호자 없는 돌봄공백 상태에 놓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등학생의 개인, 부모 및 가구 특성별로 주당 방과 후 돌봄공백 일수에 차이가 있는지  $\chi^2$ -test를 통해 살펴본 결과, 초등학생의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초등학생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는 학년, 형제·자매 수에 따라 방과 후 돌봄공백 일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1학년의 73.9%가 방과 후 거의 돌봄공

Table 2. Definition of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Variables		Definition	
Independent variables	Gender	0. Male, 1. Female	
	Child's characteristics	School grade	0. 1st in elementary school 1. 4th in elementary school
		The number of siblings	The number of sibling
		Parent's characteristics	Father's age
	Mother's age		Mother's age
	Father's education		0. Two-year bachelor's degree or lower 1. Four-year bachelor's degree or higher
	Mother's education		0. Two-year bachelor's degree or lower 1. Four-year bachelor's degree or higher
	Family's characteristics	Family type	0. Single and non-earner family 1. Dual-earner family
		By parental employment	0. Two-parent family 1. Three-generation family
			1. Single parent and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y
		Family type	0. Non-multicultural family 1. Multicultural family
		By parental nativity status	
		Family income	The natural logarithm of monthly family income
		Region	0. Small and medium cities, rural areas 1. Metropolis
Dependent variables	Whether after-school care present or not	0. After-school care present 1. After-school care absent	
	Number of absent days of after-school care	0. Almost never 1. 1day-2days a week 2. 3-4days a week 3. Almost everyday	



백을 겪지 않는 반면, 4학년의 경우 55.3%만이 방과 후 거의 돌봄공백을 겪지 않았다. 또한 거의 매일 돌봄공백 상태에 있는 비율은 4학년(18.9%)이 1학년(9.8%)에 비해 2배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고학년이 방과 후 성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한 대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형제·자매 수가 많을수록 방과 후 혼자 지내거나 형제·자매끼리 보내는 일수가 많아 돌봄공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년이 높을수록 방과 후 나홀로 아동의 규모가 커진다는 최근 실태조사(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1)의 내용과 일치한다.

부모의 특성에서는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에 따라 방과 후 돌봄공백 일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방과 후 돌봄공백 일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부모의 자녀는 형제·자매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수준을 갖는 경우 방과 후 거의 돌봄공백이 없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2년제 대학 이하의 학력수준을 갖는 경우 초등학생이 방과 후 거의 매일 돌봄공백 상태에 놓인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초등학생이 방과 후 혼자 또는 형제·자매와 지내는 비율이 적었다.

한편 가구의 특성, 즉 맞벌이가정 여부, 가족형태, 다문화가정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거주지역에 따라 방과 후 돌봄공백 일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맞벌이가정의 초등학생은 방과 후 거의 돌봄공백을 겪지 않는다는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8.7%로 나타났으며 23.8%가 거의 매일 돌봄공백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맞벌이가정의 초등학생의 경우 방과 후 거의 돌봄공백 상태를 경험하지 않는 것(82.5%)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맞벌이가정의 초등학생 자녀가 방과 후 성인 보호에 취약한 대상이 되고 있으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방과 후 초등학생의 보호와 교육 활동에 정부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조부

모와 함께 거주하는 3세대가족의 경우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 거의 돌봄공백이 없는 비율(80.5%)이 양부모가족(63.6%)이나 조손·한부모가족 초등학생(54.2%)에 비해 매우 높고, 방과 후 거의 매일 돌봄공백 상태에 있다는 비율(5.0%)이 양부모가족(14.6%)이나 조손·한부모가족의 초등학생(23.9%)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부모를 대체하는 성인 보호자, 즉 조부모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보호에 일차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부모의 유무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보호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나타내는 결과임과 동시에 한부모·조손가족의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 보호에 취약한 대상이 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한편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들도 방과 후 거의 매일 돌봄공백 상태에 있는 비율(21.4%)이 비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14.2%)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들 또한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취약한 대상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방과 후 거의 돌봄공백이 없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과 후 거의 매일 돌봄공백 상태에 있는 비율을 살펴보면 월평균 200만원 미만(18.5%)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월평균 350만원-5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가구(14.8%)와 월평균 5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갖는 가구(13.7%)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비율의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 거의 매일 혼자 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방과 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와 교육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거주지역별로는 대도시(12.4%)보다 농어촌·중소도시(15.8%)의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 거의 매일 돌봄공백 상태에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s of characteristics by absence days of after-school care elementary school students**

Variables	Values	(unit: persons(%))				$\chi^2$	
		All	Almost never	1day-2days	3-4days		Almost everyday
		4,720 (100.0)	3,044 (64.5)	584 (12.4)	412 ( 8.7)	680 (14.4)	
Gender	Male	2,453 (100.0)	1,562 (63.7)	314 (12.8)	219 ( 8.9)	358 (14.6)	
	Female	2,267 (100.0)	1,482 (65.4)	270 (11.9)	193 ( 8.5)	322 (14.2)	1.637
	Total	4,720 (100.0)	3,044 (64.5)	584 (12.4)	412 ( 8.7)	680 (14.4)	
Children's characteristics	1st in elementary school	2,342 (100.0)	1,730 (73.9)	230 ( 9.8)	152 ( 6.5)	230 ( 9.8)	
	4th in elementary school	2,378 (100.0)	1,314 (55.3)	354 (14.9)	260 (10.9)	450 (18.9)	182.403 ***
	Total	4,720 (100.0)	3,044 (64.5)	584 (12.4)	412 ( 8.7)	680 (14.4)	
	0 person	557 (100.0)	379 (68.0)	61 (11.0)	39 ( 7.0)	78 (14.0)	
	1 person	3,126 (100.0)	2,037 (65.2)	372 (11.9)	278 ( 8.9)	439 (14.0)	
	More than 2 people	1,036 (100.0)	627 (60.5)	151 (14.6)	95 ( 9.2)	163 (15.7)	13.220 *
	Total	4,719 (100.0)	3,043 (64.5)	584 (12.4)	412 ( 8.7)	680 (14.4)	
	Under 35 years old	278 (100.0)	202 (72.7)	21 ( 7.6)	24 ( 8.6)	31 (11.2)	
	35-39 years	1,580 (100.0)	1,093 (69.2)	169 (10.7)	122 ( 7.7)	196 (12.4)	
	40-44 years	1,877 (100.0)	1,185 (63.1)	243 (12.9)	167 ( 8.9)	282 (15.0)	46.162 ***
	45 year and older	742 (100.0)	425 (57.3)	121 (16.3)	81 (10.9)	115 (15.5)	
	Total	4477 (100.0)	2,905 (64.9)	554 (12.4)	394 ( 8.8)	624 (13.9)	
Parent's characteristics	Under 35 years old	823 (100.0)	583 (70.8)	74 ( 9.0)	63 ( 7.7)	103 (12.5)	
	35-39 years	2,312 (100.0)	1,542 (66.7)	282 (12.2)	189 ( 8.2)	299 (12.9)	
	40-44 years	1,119 (100.0)	663 (59.2)	158 (14.1)	112 (10.0)	186 (16.6)	53.267 ***
	45 year and older	267 (100.0)	140 (52.4)	40 (15.0)	32 (12.0)	55 (20.6)	
	Total	4,521 (100.0)	2,928 (64.8)	554 (12.3)	396 ( 8.8)	643 (14.2)	
	Two-year bachelor's degree or lower	2,572 (100.0)	1,610 (62.6)	318 (12.4)	255 ( 9.9)	389 (15.1)	
	Four-year bachelor's degree or higher	1,910 (100.0)	1,297 (67.9)	237 (12.4)	140 ( 7.3)	236 (12.4)	19.096 ***
	Total	4,482 (100.0)	2,907 (64.9)	555 (12.4)	395 ( 8.8)	625 (13.9)	

Table 3. Continued

Variables	Values					$\chi^2$	
	All	Almost not	1 day-2 days	3-4 days	Almost everyday		
Parent's characteristics		4,720 (100.0)	3,044 (64.5)	584 (12.4)	412 ( 8.7)	680 (14.4)	
	Mother's education						
	Two-year bachelor's degree or lower	3,182 (100.0)	1,990 (62.5)	402 (12.6)	307 ( 9.6)	483 (15.2)	
	Four-year bachelor's degree or higher	1,339 (100.0)	937 (70.0)	153 (11.4)	90 ( 6.7)	159 (11.9)	25.612 ***
Total	4,521 (100.0)	2,927 (64.7)	555 (12.3)	397 ( 8.8)	642 (14.2)		
Family type by parental employment		2,108 (100.0)	1,740 (82.5)	225 (10.7)	78 ( 3.7)	65 ( 3.1)	
	Single and non-earner family						
	Dual-earner family	2,226 (100.0)	1,085 (48.7)	308 (13.8)	304 (13.7)	529 (23.8)	658.252 ***
	Total	4,334 (100.0)	2,825 (65.2)	533 (12.3)	382 ( 8.8)	594 (13.7)	
Family structure		3,927 (100.0)	2,497 (63.6)	497 (12.7)	359 ( 9.1)	574 (14.6)	
	Two-parent family						
	Three-generation family	421 (100.0)	339 (80.5)	39 ( 9.3)	22 ( 5.2)	21 ( 5.0)	
	Single parents and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y	356 (100.0)	193 (54.2)	48 (13.5)	30 ( 8.4)	85 (23.9)	81.763 ***
Total	4,704 (100.0)	3,029 (64.4)	584 (12.4)	411 ( 8.7)	680 (14.5)		
Family's characteristics		4,612 (100.0)	2,990 (64.8)	568 (12.3)	398 ( 8.6)	656 (14.2)	
	Family type by parental nativity status						
	Non-multicultural family	103 (100.0)	52 (50.5)	15 (14.6)	14 (13.6)	22 (21.4)	10.032 *
	Multicultural family	4,715 (100.0)	3,042 (64.5)	583 (12.4)	412 ( 8.7)	678 (14.4)	
Total	779 (100.0)	461 (59.2)	107 (13.7)	67 ( 8.6)	144 (18.5)		
Family income		1,827 (100.0)	1,204 (65.9)	213 (11.7)	176 ( 9.6)	234 (12.8)	
	Less than 2,000,000 won						
	2,000,000-3,499,999 won	908 (100.0)	564 (62.1)	118 (13.0)	92 (10.1)	134 (14.8)	34.928 ***
	More than 3,500,000-4,999,999 won	930 (100.0)	640 (68.8)	108 (11.6)	55 ( 5.9)	127 (13.7)	
Total	4,444 (100.0)	2,869 (64.6)	546 (12.3)	390 ( 8.8)	639 (14.4)		
Region		2,728 (100.0)	1,703 (62.4)	350 (12.8)	243 ( 8.9)	432 (15.8)	
	Small and medium cities, rural areas						
	Metropolis	1,992 (100.0)	1,341 (67.3)	234 (11.7)	169 ( 8.5)	248 (12.4)	14.763 **
	Total	4,720 (100.0)	3,044 (64.5)	584 (12.4)	412 ( 8.7)	680 (14.4)	

\*p<.05, \*\*p<.01, \*\*\*p<.001

## 2. 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공백 유무의 결정 요인

이항로짓모델(Binary Logit Model)로 분석된 방과 후 돌봄공백 유무의 결정 요인은 Table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교의 개인 특성 중에서는 학년, 형제·자매 수, 부모의 특성 중에서는 모의 교육수준, 가구의 특성 중에서는 맞벌이가정 여부, 3세대가족 여부, 다문화가정 여부, 그리고 월평균 가구소득으로 나타났다.

앞서 방과 후 돌봄공백 일수에 따른 특성 비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등학교의 개인 특성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4학년이 1학년보다, 형제·자매 수가 많을수록 일주일에 1일 이상 방과 후 돌봄공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등학교 고학년생이거나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부모가 성인 보호자 없이 자녀들을 방치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Kim & Kim 2006)와 공적 방과 후 서비스가 대체로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방과 후 혼자 또는 형제·자매끼리 시간을 보내는 고학년 초등학교에 대한 방과 후 실태의 점검이 요구되며, 무엇보다도 가정 내 방임에 대한 부모의 관대한 인식과 아동보호에 대한 성인들의 물이해, 그리고 방과 후 성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모든 학생들을 적절하게 지원하지 못하는 보호서비스 체계가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부모의 특성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4년제 대학 이상일 경우 방과 후 하루 이상 돌봄공백을 겪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방과 후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학원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Kim 2011)를 고려해 볼 때,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어머니의 초등학교 자녀가 학교를 비롯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적 방과 후 서비스뿐만 아니라 학원과 같은 시장을 통한 사적 방과 후 서비스의 이용 기회가 적을 수 있을

을 보여준다. 그리고 초등학교 자녀를 방과 후 홀로 남겨두거나 형제·자매끼리 남겨두어야 할 상황에 있는 어머니들이 방과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접근의 용이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가구 특성은 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공백 유무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기술통계분석에서도 차이를 보인 바와 같이, 맞벌이가정의 초등학교생이 방과 후 돌봄공백을 겪을 가능성이 비맞벌이 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맞벌이가정의 초등학교생이 방과 후 서비스 제공 대상에 우선 대상이 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방과 후 돌봄공백 상태에 놓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 가구소득의 영향과 함께 살펴보면, 가구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맞벌이가정의 초등학교생, 즉 생계형 맞벌이가정의 초등학교생들이 최우선적으로 방과 후 보호 및 교육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가정의 초등학교생과 더불어 다문화가정의 초등학교생도 일반가정의 초등학교생들에 비해 방과 후 돌봄공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다문화가정 초등학교생 또한 방과 후 보호 및 교육의 우선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 18세 이하의 다문화가정 자녀는 2011년 현재 약 15만 명에서 2020년에는 33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9;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1), 다문화가정의 74.4%가 가구소득 수준이 하위 1-2분위에 속한다(Yang et al. 2011)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다문화가정의 초등학교생들의 상당수는 공적 방과 후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저소득·취약계층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선별적 공적 방과 후 서비스의 대상 범위가 넓어지고 그 수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가족형태에 있어서 3세대의 동거는 초등학교생이 방과 후 돌봄공백 상태에 놓일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조부모와 동거하는 3세대가족의 초등학교생은 양부모가족의 초등학교생보다 방과 후 돌봄공백을 겪을 가능성이 낮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3세대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2.5%에서 2010년 6.1%로 절반가량 감소하였으며, 2035년에는 3.8%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Statistics Korea 2012.4.26 press release).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 핵가족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가구 형태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공백 문제는 저소득·취약계층과 같은 일부 계층에 한정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해결방안의 하나로 3세대 동거가 제안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공백 일수의 결정 요인

다항로짓모델(Multinomial Logit Model)과 이항로짓모델(Binary Logit Model)로 분석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공백 일수의 결정요인 분석결과는 Table 5부터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Table 5는 방과 후 돌봄공백 일수가 ‘거의 없음

(A)’에 해당하는 초등학생을 준거집단으로 한, 첫 번째 다항로짓 분석 결과이다. 분석결과, ‘1-2일(B)’, ‘3-4일(B)’, ‘거의 매일(D)’ 방과 후 돌봄공백 일수를 갖는 초등학생 그룹 각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공통된 요인은 학년과 맞벌이가정 여부, 그리고 3세대가족 여부로 분석되었다. 즉 초등학교 1학년보다 4학년이, 맞벌이가정의 초등학생이 방과 후 돌봄공백 일수가 거의 없는 경우보다는 1-2일, 3-4일, 거의 매일 돌봄공백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조부모와 거주하는 3세대가족의 초등학생이 부모와 거주하는 2세대가족의 학생에 비해 방과 후 돌봄공백 일수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았다.

분석대상 초등학생의 형제·자매 수, 부의 연령, 모의 교육수준, 다문화가정 여부, 가구소득, 거주지역은 비교 그룹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방과 후 돌봄공백 일수가 거의 없는 초등학생(A)과 주당 1-2일 정도 방과 후 돌봄공백이 있는 초등학생(B)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앞서 기술한 공통 요인들 외

Table 4. Determinants of whether after-school care is present or not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Binary Logit Model

		B	(SE)	
Constant		-1.80	(0.54)	**
Child's characteristics	Gender	-.05	(0.07)	
	School grade(4th in elementary school)	.71	(0.08)	***
	The number of siblings	.17	(0.06)	**
Parent's characteristics	Father's age	.01	(0.01)	
	Mother's age	.02	(0.01)	
	Father's education(four-year bachelor's degree or higher)	-.02	(0.09)	
	Mother's education(four-year bachelor's degree or higher)	-.36	(0.10)	***
Family's characteristics	Family type by parental employment(dual-earner family)	1.76	(0.08)	***
	Family structure(three-generation family)	-1.19	(0.14)	***
	(single parents and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y)	.22	(0.62)	
	Family type by parental nativity status(multicultural family)	.86	(0.26)	**
	Family income	-.21	(0.07)	**
	Region(metropolis)	-.13	(0.07)	
$\chi^2$		816.109***		
-2Loglikelihood		4426.582		

\*\*p<.01, \*\*\*p<.001

에 형제·자매 수가 많을수록, 아버지의 연령이 높을수록 방과 후 돌봄공백 일수가 거의 없는 경우보다는 일주일에 1-2일 정도 방과 후 돌봄공백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아버지의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해 볼 때, 아버지의 연령효과는 형제·자매의 수의 효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형제·자매 수는 방과 후 1-2일 정도 돌봄공백 일수가 있는 초등학생(B)과 거의 매일 돌봄공백 상태에 있는 초등학생(D)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형제·자매가 있는 초등학생들 집단 내에 일시적으로 돌봄공백 상태에 있는 학생들과 항시적으로 성인을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돌봄공백 상태를 경

험하는 학생들로 나뉘어 있음을 의미한다.

준거집단(A)과 일주일에 3-4일 정도 방과 후 돌봄공백 상태에 있는 초등학생(C)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주당 1-2일 정도 방과 후 돌봄공백 상태에 있는 초등학생(B)의 분석결과에서 보이지 않았던 모의 교육수준, 다문화가정 여부, 가구소득의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의 교육수준이 4년제 대학이상일 경우, 그리고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방과 후 돌봄공백 일수가 3-4일 정도 될 가능성이 낮으나 다문화가정의 학생일 경우 방과 후 3-4일 정도 돌봄공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변수들은 준거집단(A)과 일주일에 거의 매일 방과 후 돌봄공백 상태에 놓인

Table 5. Determinants of absence days of after-school care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Multinomial Logit Model

		B/A		C/A		D/A	
		B	(SE)	B	(SE)	B	(SE)
Constant		-2.98	(0.72) ***	-2.93	(0.86) **	-2.97	(0.78) ***
Child's characteristics	Gender	-.10	(0.10)	.03	(0.12)	-.03	(0.10)
	School grade(4th in elementary school)	.61	(0.11) ***	.74	(0.13) ***	.81	(0.11) ***
	The number of siblings	.17	(0.08) *	.14	(0.09)	.18	(0.08) *
Parent's characteristics	Father's age	.04	(0.02) *	-.01	(0.02)	-.01	(0.02)
	Mother's age	.00	(0.02)	.03	(0.02)	.03	(0.02)
	Father's education(four-year bachelor's degree or higher)	.07	(0.12)	-.13	(0.15)	-.03	(0.13)
	Mother's education(four-year bachelor's degree or higher)	-.25	(0.13)	-.47	(0.16) **	-.42	(0.14) **
Family's characteristics	Family type by parental employment (dual-earner family)	.91	(0.10) ***	2.05	(0.14) ***	2.75	(0.15) ***
	Family structure(three-generation family)	-.76	(0.19) ***	-1.15	(0.24) ***	-1.77	(0.25) ***
	(single parents and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y)	.52	(0.73)	.42	(0.86)	-.63	(1.13)
	Family type by parental nativity status (multicultural family)	.34	(0.37)	1.24	(0.35) ***	1.22	(0.34) ***
	Family income	-.15	(0.09)	-.26	(0.10) *	-.24	(0.10) *
	Region(metropolis)	-.11	(0.10)	.01	(0.12)	-.24	(0.11) *
$\chi^2$				994.076***			
-2Loglikelihood				7256.806			

Note) A : almost never alone, B : 1day-2days a week, C : 3-4days a week, D : almost always alone

\*p<.05, \*\*p<.01, \*\*\*p<.001

초등학생(D)의 분석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교육수준, 다문화가정 여부, 가구소득의 변수가 방과 후 1-2일 정도 혼자 또는 형제·자매와 함께 지낼 가능성과 3일 이상 홀로 지낼 가능성을 구분하는 결정요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준거집단(A)과 일주일에 거의 매일 방과 후 돌봄공백이 있는 초등학생(D)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앞서 주당 3-4일 정도 돌봄공백이 있는 초등학생(C)의 분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된 변수들 이외에 거주지역의 변수, 즉 대도시 거주 초등학생이 방과 후 거의 매일 돌봄공백이 있을 가능성이 농어촌이나 소도시 초등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거주지역의 변수가 방과 후 3-4일 정도 돌봄공백이 있는 초등학생과 거의 매일 돌봄공백이 있는 초등학생을 구분하는 결정요인임을 시사

한다.

Table 6은 준거집단을 방과 후 주당 돌봄공백 일수가 1-2일 정도인 초등학생(B)으로 설정하여, 방과 후 3-4일 정도 돌봄공백이 있는 초등학생 집단(C)과 거의 매일 돌봄공백이 있는 초등학생 집단(D)을 다항로짓모델로 분석한 두 번째 결과이다.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맞벌이가정 여부와 3세대가족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맞벌이가정 여부는 공통적으로, 3세대가족 여부는 방과 후 거의 매일 돌봄공백이 있는 초등학생 그룹(D)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맞벌이가정의 초등학생들이 주당 3-4일 및 거의 매일 방과 후 돌봄공백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3세대가족의 초등학생은 방과 후 거의 매일 돌봄공백 상태에 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Table 6. Determinants of absence days of after-school care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over 1day-2 days a week): Multinomial Logit Model

		C/B		D/B	
		B	(SE)	B	(SE)
Constant		-.06	(1.06)	-.10	(0.99)
Child's characteristics	Gender	.15	(0.14)	.10	(0.13)
	School grade(4th in elementary school)	.07	(0.15)	.12	(0.14)
	The number of siblings	.04	(0.12)	.08	(0.11)
Parent's characteristics	Father's age	-.04	(0.03)	-.05	(0.02)
	Mother's age	.04	(0.03)	.04	(0.02)
	Father's education(four-year bachelor's degree or higher)	-.26	(0.18)	-.18	(0.16)
	Mother's education(four-year bachelor's degree or higher)	-.14	(0.20)	-.07	(0.18)
Family's characteristics	Family type by parental employment(dual-earner family)	1.16	(0.17) ***	1.86	(0.17) ***
	Family structure(three-generation family)	-.29	(0.29)	-.87	(0.30) **
	(single parents and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y)	.26	(0.95)	-.59	(1.21)
	Family type by parental nativity status(multicultural family)	.82	(0.44)	.81	(0.44)
	Family income	-.18	(0.13)	-.18	(0.12)
Region(metropolis)	.11	(0.15)	-.15	(0.14)	
$\chi^2$		173.708***			
-2Loglikelihood		2,864.405			

Note) B : 1day-2days a week, C : 3-4days a week, D : almost always alone

\*\*p<.01, \*\*\*p<.001

맞벌이가정의 초등학생이 방과 후 항시적으로 성인의 보호 밖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가구 내 추가적인 성인 보호자가 있는 3세대가족의 경우 초등학생의 상시적 돌봄공백 일수를 줄일 수 있는 요인임을 보여주는 결과임과 동시에 가정 내 성인보호자의 수가 방과 후 아동 보호의 일차적인 안전망으로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Table 7은 방과 후 돌봄공백 일수가 주당 3-4일 이상인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일주일에 거의 매일 돌봄공백 상태에 있는 초등학생(D)을 '1'로 설정하고, 3-4일 정도 돌봄공백 상태에 있는 초등학생을 '0'으로 설정하여 이항로짓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모델의  $\chi^2$ 값이 유의하지 않아 분석결과를 의미 있게 해석하기는 어려우나,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맞벌이가정의 초등학생이 방과 후 거의 매일 돌봄공백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이 농어

촌이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에 비해 거의 매일 돌봄공백 상태에 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통해 수집된 초등학교 1학년 및 4학년 4,720명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의 개인, 부모 및 가구의 특성에 따른 방과 후 돌봄공백 일수의 차이를 검증하고, 이항로짓모델과 다항로짓모델을 이용하여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공백 유무 및 일수를 결정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기초한 본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공백 일수는 개인, 부모 및 가구의 특성에 따라 달랐다. 구체적으로, 4학년이 1학년보다, 부모의 연령이 높고,

Table 7. Determinants of absence days of after-school care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over 3-4 days a week): Binary Logit Model

		D/C	
		B	(SE)
Constant		.05	(1.08)
Child's characteristics	Gender	-.03	(0.14)
	School grade(4th of elementary school)	.05	(0.15)
	The number of siblings	.04	(0.11)
Parent's characteristics	Father's age	.00	(0.02)
	Mother's age	.00	(0.03)
	Father's education(four-year bachelor's degree or higher)	.07	(0.17)
	Mother's education(four-year bachelor's degree or higher)	.07	(0.19)
Family's characteristics	Family type by parental employment(dual-earner family)	.70	(0.20) ***
	Family structure(three-generation family)	-.53	(0.33)
	(single parents and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y)	-.73	(1.25)
	Family type by parental nativity status (multicultural family)	.05	(0.40)
	Family income	-.02	(0.14)
Region(metropolis)	-.28	(0.14) *	
$\chi^2$		22.070	
-2Loglikelihood		1198.780	

Note) C : 3-4days a week, D : almost always alone

\*p<.05, \*\*\*p<.001



학력이 낮을수록, 맞벌이가정이 비맞벌이가정보다, 양부모가족 및 조손·한부모가족이 3세대가족보다, 다문화가정이 비다문화가정보다, 가구 월평균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농어촌·중소도시가 대도시보다 방과 후 돌봄공백 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맞벌이가정, 조손·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 중 거의 매일 돌봄공백 상태를 겪는 비율이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방과 후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초등학교 고학년인 경우, 형제·자매 수가 많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맞벌이가정이 비맞벌이가정보다, 부모와 자녀만 동거하는 2세대가족이 조부모와 동거하는 3세대가족보다, 다문화가정이 비다문화가정보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방과 후 주당 1일 이상 돌봄공백 상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의 특성별 방과 후 돌봄공백 일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돌봄공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포함되는 초등학생들이 공적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주요 대상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적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저소득 및 맞벌이가정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확대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서비스가 각 개별가족 수준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정책효과가 미흡한 원인은 서비스의 대상이 저소득 및 취약계층 등으로 한정되었다는 점, 접근성의 제한, 시장서비스 이용,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등에서 찾을 수 있다(Song et al. 2010). 방과 후 돌봄공백의 경험이 비단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뿐만이 아닌 일반적인 가구, 특히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과 맞벌이가정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다면, 현재까지 선별적으로 지원되어왔던 정부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과 방식을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전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아동의 돌봄노동을 제도적으로 사회화한 OECD 국가들에서 이미 여성의 고용률이 증가되었다는 연구 결과(Chang

2010)를 고려해 볼 때, 일·가정 양립과 아동의 보호권, 돌봄권, 교육권 등 아동의 권리 이행의 효과를 동시에 거두기 위해서 초등학생에 대한 공적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득의 양극화의 심화, 경기 침체, 이혼의 증가, 다문화가정의 증가 등으로 인한 해체가정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방과 후 서비스의 주요 대상층의 폭이 넓어지고 그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의 전환과 함께, 기존의 선별적 우선 서비스 대상이 되었던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집중 지원과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저학년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방과후학교는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로 대상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엄마표 온종일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모든 아동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질적 수준의 향상 및 양적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주당 방과 후 돌봄공백 일수가 거의 없는 아동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1-2일’, ‘3-4일’, ‘거의 매일’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들 비교그룹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학년, 맞벌이가정 여부, 3세대가족 여부가 ‘1-2일’, ‘3-4일’, ‘거의 매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공통된 요인이다. 초등학교 고학년, 맞벌이 가정, 2세대가족의 아동이 1-2일의 일시적 및 3-4일 이상의 항시적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정책수요층인 것으로 분석된 결과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로의 전환과 함께 정책수요층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화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우선, 일시적인 돌봄공백을 겪는 나홀로 아동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시간제 서비스로 이용가능하다는 점에서 초등학생의 방과 후 일시적 돌봄공백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으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의 비율은 약 25%로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Koh 2012), 이용률 제고가 요구된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지역사회의 기관을 활용하여 초등학생의 일시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서울시에서는 2013년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주민센터에서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Yonhap News 2012b).

또한 형제·자매 수가 많고, 부의 연령이 많은 초등학생이 방과 후 돌봄공백이 거의 없는 경우보다 주당 1-2일 정도 일시적 돌봄공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실증분석의 결과는 형제간의 돌봄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부모의 인식이 일시적 돌봄공백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사회 전반의 아동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제고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교 단위에서는 학부모교육을 통한 방과 후 아동보호에 관한 기초 교육이 요구되며,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건강가정센터 등을 통한 부모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 다문화가정, 저소득가구에서 방과 후 돌봄공백이 주당 1-2일보다 3일 이상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초등학생이 대도시 거주학생에 비해 방과 후 돌봄공백이 3-4일보다 거의 매일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는 이들 아동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방과 후 서비스가 아닌, 상시적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며 방과 후 서비스 제공에 있어 소득계층 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방과 후 돌봄공백 일수가 주당 1-2일 정도인 초등학생을 준거 집단으로 했을 때, 맞벌이가정의 초등학생이 주당 3-4일 및 거의 매일 돌봄공백 상태를 겪을 가능성이 높고,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3세대가족에서 거의 매일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방과 후 돌봄공백 일수의 3-4일 정도인 초등학생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한 모델 분석의 결과에서도 맞벌이가정,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아동이 거의 매일 혼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 즉,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3세대가족에서 아동의 돌봄공백 수준이 낮다는 결과에 기초한다면, 전반적으로 핵가족 사회인 우리 사회에서 가족 내 세대 간 교류가 갖는 긍정적인 기능을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대안의 하나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거주지역에 있어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와 농어촌 초등학생이 상시적으로 돌봄공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도시에는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시적 방과 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도시 및 농어촌에는 돌봄공백을 상존에 놓여 있는 나홀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상시적인 공적 방과 후 서비스를 확충하여 제공하는 등 지역 여건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After-school Homepage(2012) Introduction about after-school. Available from <http://afterschool.go.kr/com/afterSchool/afterSchool.do> [cited 2012 November 13]
- Aizer A(2004) Home alone: Supervision after school and child behavior. *J Public Econ* 88, 1835-1848
- An CB, Jeon SH(2008) Intergenerational transfer of educational achievement and household income. *Korean J Public Finance* 1(1), 119-142
- Brandon PD(1999) Determinants of self-care arrangements among school-age children. *Children Youth Service Rev* 21(6), 497-520
- Casper LM, Smith KE(2004) Self-care: Why do parents leave their children unsupervised? *Demography* 41(2), 285-301
- Cha SJ, Seo MH, Jung MJ, Her CY(2010) A study on legislation of the law about in-home child care system.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eoul
- Chang JY(2010) Socialization of care work and women's economic activity. *Acad Conf Book Korean Assoc Public Admin*, 40-66
- Green KM, Hynes K, Doyle EA(2011) Self-care among school-aged children of immigrants. *Children Youth Serv Rev* 33, 783-789
- Kerrebrock N, Lewit EM(1999) Children in self-care. *Future Children* 9(2), 151-160
- Kim JK(2011) An analysis of after-school service and its cost for the lower graders of elementary

- schools. Korean J Child Care Educ Policy 5(2), 121-137
- Kim JK, Baek HJ, Lim HJ, Lee KO(2010)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1.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Seoul
- Kim JW, Kim YJ(2006) The actual conditions of after-school programs and need assessments of parents and teachers about after-school programs. J Korean Council Children's Rights 10(1), 49-72
- Kim MS, Chong YS(1997) The adjustment differences between self-care and adult-care children after school. Korea J Child Care Educ 9, 183-196
- Kim SM, Lee KY, Lee SM, Kim EJ, Kim SY, Ryu JE(2010) Policy study in home childcare support services.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eoul
- Kim SW, Son JY(2011) An study on self-care and adjustment among children of low income families. Dongkwang 107, 35-89
- Ko JJ(2005) The effect of parental monitoring and adolescents' self-control on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J Korean Home Econ Assoc 43(2), 1-17
- Koh SJ(2012) The reinforcement for policy to support child care work in family as the coping strategy for low fertility society. Korean J Psychol Soc Issues 18(1), 53-77
- Kong YK, Kim HH(2006) Moderating effects of mother's support and community environment on relationships between after school self-care and problem behavior. Korean J Child Stud 27(2), 153-165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2009) Impact of multi-cultural family on quantity and quality of population in Korea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2012) Social security system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Sweden
- Laughlin L(2010) Who's minding the kids? Child Care Arrangements: Spring 2005/Summer 2006. Washington D.C: US Census Bureau
- Lee BJ, Cho MR(2011) The effects of after-school self-care on children's development. J Korean Soc Child Welfare 36, 7-33
- Lee JS, Kim EK(2008) An analysis of adaptation and self-consciousness between supervised and unsupervised children. J Korean Home Econ Assoc 46(2), 85-96
- Lee M(2009) A study on activation of after-school guidance of children. Korean Acad Soc Welfare Support 4(1), 191-207
- Lee MH, Hong SG, Seo MH, Jung MJ, Kwon HJ, Lim YM, Shin BW(2011) Examining child rearing policies in South Korea from the consumer's perspectiv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eoul
- Lee MJ, Kim YM(2007) A comparative study of parental competency, parenting practices, and social support between late and young parents. Korea J Child Care Educ 49, 289-309
- Marshall NL, Coll CG, Marx F, McCartney K, Keefe N, Ruh J(1997) After-school time and children' behavioral adjustment. Merrill-Palmer Quarterly 43(3), 497-514
-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 Development (2006) Policy tasks of the reduction of private educational expense for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2009) A study on policy's effects of elementary after-school care classes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2011) Development of model standard operating regional solidarity(children · women)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2012) Youth work policy guidelines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2012) Development strategy for youth policy through the linkage of women and family policy. Issue brief 8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12) 2012 guidelines for community child center operation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eadquarters Community Child Center(2012) Report on nationwide community child centers survey(June, 2012)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2009) National survey on child care: Report on household survey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eoul University R&DB Foundation(2009) National survey on child & youth
-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2011). Internal migration statistics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Data Archive Homepage (2012) Introduction of national child & youth panel survey. Available from <http://archive.nypi.re.kr/sub.asp?Mcode=C030000> [cited 2012 November 11]
- Oh AR, Yoo GS(2012) Working mothers'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in afterschool programs and satisfaction with afterschool programs. J Korea Early Childhood Educ 19(2), 227-244
- Ok KH, Kim MH, Chun HY(2001) Variations and outcomes in the after-school care of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Korean J Child Stud 22(2), 91-111
- Overturf Johnson J(2005) Who's minding the kids? Child care arrangements: Winter 2002. Current Population Reports 70-101. Washington, D.C: U.S. Census Bureau
- Pettit GS, Laird RD, Bates JE, Dodge KA(1997) Patterns of after-school care in middle childhood:

- Risk factors and developmental outcomes. Merrill-Palmer Quarterly 43, 515-538
- Ryu YK(2012) Care deficit and dualism of socialization of care. Criticism Social Policy 37, 113-153
- Seo EJ(2006) A study on children's psychological welfare according to the type of protection after school. J Child Educ 15(4), 287-296
- Shim NS(2009) Status of after school and betterment plan. Korean Acad Soc Welfare Support 4(1), 71-97
- Song HR, Cho YH, Jeong YK, Koh SK, Kim YK (2010) A study on the demand and development of childcare policy for work-family balanc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eoul
- Statistics Korea(2011)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 Statistics Korea(2012) 2010-2035 Household projections.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255176&pageNo=12&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255176&pageNo=12&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cited 2012 November 9]
- Vandivere S, Kathryn MPP, Capizzino J, Zaslow M(2003a) Left unsupervised: A look at the most vulnerable children. Child Trends Research Brief
- Vandivere S, Tout K, Zaslow M, Calkins J, Capizzino J(2003b) Unsupervised time: Family and child factors associated with self-care. Occasional Paper 71.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 Yang KM, Kim JK, Kim SK(2010) After-school care services survey: An analysis on utilization and the adequacy of the service supply and demand analysis.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Seoul
- Yang KM, Kim SK, Park JH, Jung SH(2011) A longitudinal study of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I.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Seoul
- Yonhap News(2012a) OECD, 2030-2060, South Korea's economic growth rate will be down to 1% 2012.11.11. Available from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1/11/0200000000AKR20121111083000081.HTML?did=1179m> [cited 2012 November 11]
- Yonhap News(2012b) Temporary Child-care in Seoul will be easier 2012.10.28. Available from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_New.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84%9c%ec%9a%b8%ec%8b%9c%20%ec%8b%9c%ea%b0%84%ec%a0%9c%20%eb%b3%b4%ec%9c%a1&contents\\_id=AKR20121027033600004](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_New.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84%9c%ec%9a%b8%ec%8b%9c%20%ec%8b%9c%ea%b0%84%ec%a0%9c%20%eb%b3%b4%ec%9c%a1&contents_id=AKR20121027033600004) [cited 2012 November 15]
- Yoon JS, Lee WJ(2012) An analysis on the general comments to implementing child rights in early childhood of un children's right committee. J Korean Council Children's Rights 16(1), 51-72